

한국 고전시가 연구사에서 『조선가요집성』의 성격과 위치

김명준(고려대학교)

I. 서론

김태준(金台俊)의 『조선가요집성』(1934. 2. 11.)은 한국 고전시가 연구상 최초의 한국고전시가선집이라 할 수 있다. 『조선가요집성』이 『조선한문학사』(1931. 12. 25.), 『조선소설사』(1932. 2. 25.)에 이어 출간된 점으로 보아, 김태준은 한문학, 서사문학, 시가문학 등 일련의 연구를 통해 한국문학을 정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 두 권이 연구물인데 비해 『조선가요집성』이 선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국고전시가의 구도를 그리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집(Anthology)이 편집자의 시각에서 작품을 선택·배열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조선가요집성』에는 김태준의 시가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선집은 갈래별 해제, 작품에 대한 설명 등을 담고 있어 그의 시각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조선가요집성』은 『조선한문학사』와 『조선소설사』 못지 않은 연구자의 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태준은 『조선가요집성』을 전후로, <별곡의 연구>(동아일보 13회, 1932. 1. 25. ~ 22.), <시조론>(조선일보 22회, 1933. 11. 18. ~ 12. 15.), <조선민요의 개념>(조선일보 11회, 1934. 7. 24.-8. 4.), <신라향가의 해설>(조선일보 3회, 1935. 1. 1.-4.) 등 시가 관련 글들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그의 연구물들이 『조선가요집성』 편찬과 그 시기가 가깝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김태준의 시가관을 확인하는데 비교적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태준이 엮은 시가자료집으로 『청구영언(靑丘永言)』(1939. 3. 31.)과 『고려가사(高麗歌詞)』(1939. 4. 25.) 등이 더 있는데¹⁾ 이것들과 『조선가요집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문학연구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고전시가 연구사에서 『조선가요집성』의 성격과 이를 통해 김태준의 연구사적 위치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이외에도 김태준은 『이조가사(李朝歌詞)』를 학예사에서 출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는 이 책을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다. 『고려가사』 맨 마지막 면에서 학예사 간행 책들을 알리는 자리에 이 책이 인쇄중이라는 정보와 함께 다음과 소개하고 있다. “李朝文學은 바로 歌詞의 文學이라 할 수 있다. 新羅의 鄉歌, 高麗의 歌謠와 함께 本文庫가 天下의 자랑하는 出版으로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以下, 最近世 에 이르는 五百年間의 代表歌詞를 모하놓은 近百篇에 미치는 것이니 現代 「르네상스」의 한 源泉이다.”

II. 『조선가요집성』의 성격

구 분	내 용		면
편자 서문			
목차			1-6
신라향가편	신라향가해제		N1-5
	작품 (25편)	<삼국유사 소재 향가> 득오곡모랑가, 노인헌화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처용가, 서동요, 맹아득안가, 양지사석가, 광덕의 처 엄장을 간한 노래, 월명사 도솔가, 월명사 망매를 위해서 재를 올린 노래, 용천사 혜성가, 신충 백수가, 영재 우적가 <균여전 소재 향가> 예찬여래가, 칭찬여래가, 광수 공양가, 참회엄장가, 수희공덕가, 칭전법륜가, 청불 왕세가, 상수불학가, 향순중생가, 보개회향가, 총결 무진가	5-24
백제고가편 부 고구려	작품 (2편)	정읍사 산유화	25-28
고려가사편	고려가사해제		29-31
	작품 (22편)	<향가> 예종이 이장(二將)을 위한 노래 <고려속요> 동동다리, 처용가, 정과정(진작), 서경별곡, 정석가(딩하돌하), 청산별곡(살어리), 만진춘별사, 이상곡, 사모곡, 쌍화점, 가시리 <경기체가>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가사> 서왕가1, 서왕가2, 심우가, 도덕가 <악장> 감군은, 능엄찬, 관음찬	31-79
이조가사편	이조가사예언		80
	작품 (50편)	<악장> 신도가, 유림가, 오류가, 연형제곡,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경기체가> 상대별곡, 화산별곡, 불우현곡, 화전별곡, 도동곡, 육현가, 엄연곡, 태평곡 <가사> 상춘가, 환산별곡, 강촌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장진주, 권주가, 파연곡, 태평사, 사제곡, 누항사, 선상탄, 독락당, 영남가, 노계가, 회심곡, 별회심곡, 어부사시사, 상사곡, 고사상별곡, 춘면곡, 처사가, 석춘사, 격양가, 진정록, 단장사, 죽지사, 길군악, 백구사, 황계사, 어부사, 화류사, 관등가, 매화가	81-204
부록	신위 한역 소악부 (50편)		N1-12

위 표를 보다시피 『조선가요집성』은 크게 고대 삼국, 고려, 조선 등 시대별로 작품을 배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신라향가편

고대 삼국의 노래는 모두 27편으로 이 가운데 백제 시가에 대해서는 2편을 수록하고 있고 나머지 25편은 신라 향가로 묶었다. 신라 향가를 고대 시가사의 중심에 놓은 이유는 백제나 고구려 시가에 비해 신라 향가가 현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향가의 위상을 높게 본 것 까닭은 ‘향찰 문자’로 표기된 노래라는 측면에서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선 민중이 조선의 어음을 문자 위에 표현하려는 욕구가 중국 문자를 차용한 향찰·향가로 나타난 것이라 하면서 향가를 중국 시가에 대한 조선의 노래라고 그 위치를 높게 보았다.²⁾ 이처럼 김태준은 향가를 단지 신라만의 노래가 아닌 고대 민중의 문자 표현 욕구가 현현된 형태로 보았기 때문에 신라의 향가를 고대 시가의 주류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대 삼국의 가사부전가요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고려사』 약지에 삼국의 부전가요에 대한 서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백제의 부전가요는 소략하게 언급한 반면 신라의 경우 꽤 상세한 소개가 이를 방증한다.³⁾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가요집성』이 시대별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균여의 <보현시원가>는 고려가사가 아닌 신라향가에 넣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준은 “이처럼 三國遺事 著者 釋 一然은 高麗 熙宗 때 나서 忠烈王 五年에 歿하고(1206-1289 A.D.) 均如傳은 高麗 文宗 二十九年에 된 것이니 이 鄉歌 文字의 使用法은 高麗의 것이라 하여도 鄉歌 그 自體는 新羅時代의 產物일 것이 틀림없다.”⁴⁾ 하였으나, 『삼국유사』 소재 향가와 균여의 향가는 창작의 측면에서 분명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고대 가요편에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하가(공후인)>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은 『조선한문학사』에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⁵⁾ 지금의 연구사를 통해 볼 때 이들을 한문학의 범주로만 다루는 것은 문체가 있겠지만 김태준은 한자로 표기되어 정착되었다는 점에 비중을 두어 『조선가요집성』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2. 고려가사편

고려가사는 총 22편으로 지금의 갈래 규정으로 보면 고려 향가 1편, 고려속요 12편, 경기체가 3편, 가사 4편, 약장 3편을 싣고 있다. 김태준이 이들을 고려시대 작품들도 묶은 것은 이 작품들의 창작 시기를 고려시대로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작품들은 - <정석가> <청산별곡> <만전춘별사> <이상곡> <사모곡> <가시리> <감군은> - 창작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어서 과연 어떤 근거로 이들을 같은 시기의 노래로 묶었는지

2) 김태준, 「신라 향가의 해설 -민중예술로서 가요를 말함-」 (조선일보, 1935. 1. 1. ~ 1. 4.). 金台俊 著, 『金台俊 文學史論選集』. 丁海廉 편역(現代實學社, 1997), 359~360면.

3) <신라가요해제>, 『조선가요집성』, 1~2면.

4) <신라가요해제>, 『조선가요집성』, 4면.

5)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1), 13~17면.

알 수 없다. 그는 단지 “(악장가사의 작품은) 高麗 때로부터 吏讀 或은 口傳으로 傳해 오든 것을 그대 蒐集하여 刊行한 것이라고 본다.”는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았다. 아마 그는 <정석가>등을 고려의 산물로 보는 것이 시가사의 흐름에서 자연스럽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⁶⁾ 이후 양주동이 <정석가>등에 대한 시대 귀속에 대한 고민을 “(<정석가>는) 樂章歌詞에 收載되어있을뿐이오, 何等 麗代所産임을 實證할 文獻的材料가 업스나, 그 形式·語法·內容·情調等이 上注 諸篇(<청산별곡>, <思母曲>, <履霜曲>, <가시리>, <滿殿春別詞>)과 隱然히 脈絡이 相通하는 一面, 朝鮮의 것과는 스스로 甄別되는 바가 잇으므로 此等 諸篇은 亦是 麗代歌謠라 斷코저한다.”⁷⁾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⁸⁾

이후 고려가사편은 가사와 악장을 뺀 나머지 17편과 <한송정>을⁹⁾ 더해 『고려가사』(1939)로 묶이게 된다. 달라진 점은 몇 작품에 대한 현대역과 해제에서는 작품 주변 기록들에 대한 첨언이었다. 그리고 특히 고려가사에 대한 의의를 덧붙여 놓았다. 또한 몇 달 뒤 「高麗歌詞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였다.

“萬一 이 歌詞의 存在이 없었든들 新羅鄉歌와 李朝時調 사이에 高麗時代라는 큰 Blank를 무엇으로 채웠을는지, 아니 이 高麗歌詞의 存在이 없었으면 이 땅의 이 百姓의 固有한 「리듬」으로 불으든 노래의 正統을 알지 못할 뻔 하였다. 여기서 編纂의 眞意가 있다.”¹⁰⁾

“만일 “고려가사의 발견이 없었더라면 고려 오백년의 문학 乃至 문화의 역사의 일부분을 알 길이 없을 뻔했습니다. (중략) 고려시대는 “한글”도 생기기 전이라, 조선말로 된 소설도 없고 시도 없고 연극도 없고 오직 이 노래 한 권이(『고려가사』를 가리킴-발표자 주)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 “고려가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고려문학사”는 오직 이 “고려가사”로 씌어질 것입니다. 오직 고려가사를 예찬하고 이만 붓을 던지나이다.”¹¹⁾

이처럼 그는 고려가사를, 향가와 시조를 이어주는 주요 갈래이면서 민중성을 담지한 노래로 보았던 것이다. 그의 이런 견해는 지금까지도 시가사와 고려속요를 이해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조가사편

6) <고려가사해제>, 『조선가요집성』, 30~31면.

7) 양주동, 『여요전주』 (음유문화사, 1947), 334면.

8) 고려속요의 시대 귀속과 관련한 연구물 대부분이 양주동이 최초로 고려속요의 시대 및 범주를 규정했다는 서술하고 있지만 연구사적 측면에서 보면 김태준이 최초의 언급자라고 할 수 있다.

9) <한송정>은 『고려사』에서 “<樂志>月白寒松夜 波安鏡浦秋 哀鳴來又去 有信一沙鷗.”(한송정(寒松亭) 달 밝은 밤, 잔잔한 경포(鏡浦)의 싸늘한 기운. 오락가락 슬피 우는, 정든 갈매기.) 소개된 노래인데 이것을 김태준은 다음의 시조와 같다고 했다. “한송정 달발근 밤에 경포대에 물결잔제, 유신한 백구는 오락가락하건마는, 엇더타 우리 왕손은 가고 아니 오난고.”

10) 김태준, 『고려가사』 (학예사, 1939), 19~20면.

11) 김태준, 「高麗歌詞 이야기」, 『한글』 68호(1939. 6. 1.).

이조가사편은 총 50편으로 약장 6편, 경기체가 8편, 가사(십이가사 포함) 36편을 싣고 있다. 이조가사편에 수록된 편 수가 이전 시대보다 많지만 조선시대 시가 전체로 보자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준은 조선 초기의 것은 약장가사 소재 약장류 작품으로, 숙종 이전의 작품은 문집을 남긴 인물 가운데 대가(大家)의 것을(송강, 노계, 고산), 숙종 이후는 여러 가집에 실린 십이가사와 신위의 소악부를 수록한다고 하였다.¹²⁾ 그리고 시조, 민요, 동요와 누락된 가사 부분은 후일을 기약한다고 하였다.¹³⁾

이렇듯 조선시대 작품은 선정과 배열에서 시기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얼핏보면 작품들 간에 유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김태준이 발표한 일련의 연구물을 놓고 볼 때, 이조가사편의 작품들은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조선가요집성』이 편찬되기 1년 전쯤 동아일보에 13회에 걸쳐 「별곡의 연구」를 발표한 바 있었다. 김태준은 이 글에서 경기체가, 약장, 사대부가사, 십이가사 등을 별곡으로 한데 묶어 다루었다. 논문의 요지는 별곡은 지난 500여년간 문학사에서 발전적 전개를 하였는데 그 발달의 이유로 담당층의 변화를 들었다. 별곡 초기 주 담당층은 특권 계급이었지만 후대로 오면서 점차 평민층이 주된 담당층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¹⁴⁾ 이런 점에서 볼 때, 김태준은 이조가사편을 별곡의 문학담당층을 중심으로 궁중·훈구 사대부(조선전기) → 사림과 이후 사대부 혹은 재지사족(숙종 이전) → 평민(숙종 이후)의 작품 순으로 배열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가사편의 주인공은 숙종 이후 평민층의 십이가사가 아닐까 한다.¹⁵⁾

이조가사편에서 제외된 시조는 그가 <서문>과 <이조가사예언>에서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 그 결과 1939년 『청구영언』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김태준은 자신이 중간(重刊)한 이 가집이 김천택이 직접 편찬한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중간(重刊) 대상으로 삼은 이 가집은 육당본 『청구영언』(1852년경 편찬)이었다.¹⁶⁾ 그래서인지 여타 가집을 참고하여, 작품 중간 중간 주석을 달아 놓기도 하였다. 아무튼 1939년의 『고려가사』와 『청구영언』은 『조선가요집성』의 보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조선가요집성』은 김태준이 한국고전시가 작품 가운데 시대별로 민중성에 기반한 작품들을 모은 선집이라 할 수 있다.

III. 『조선가요집성』과 김태준의 연구사적 위치

이 장에서는 향가와 고려속요를 중심으로 김태준의 연구사적 위치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이 두 갈래만을 든 이유는 김태준이 이것들에 대해 해제, 작품별 어석 및 현대역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여, 이를 통해 그의 의식을 살피는 데 용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 시가에 대해서는 주석없이 작품만을 전재하였다. 이 점이 이들 갈래를 제외

12) <이조가사예언(李朝歌詞例言)>, 『조선가요집성』, 80면.

13) <이조가사예언>, 『조선가요집성』, 80면.

14) 김태준, 「별곡의 연구」(동아일보, 1932. 1. 32. ~ 2. 2.). 金台俊 著, 『金台俊 文學史論選集』. 丁海廉 編역 (現代實學社, 1997), 418-466면.

15) 여기서 발표자는 숙종 이후 중인 가객들의 시조, 사설시조에 대한 누락 이유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구도대로라면 '사대부 → 평민'보다 '사대부→중인→평민'이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16) 이 육당본 『청구영언』은 다시 1930년에 경성제대에서 인출(印出)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김태준은 중간한 것이다.

한 이유이기도 하다.

1. 향가의 해석과 제명

신라 향가 부분은 김태준이 <서문>과 <해제>에서 밝혔듯이¹⁷⁾ 소창진평의 연구를¹⁸⁾ 대부분 수용하였다. 실제 『향가급이두연구』와 『조선가요집성』을 언 듯 보아도 배열 순서, 어석, 의역 등에서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가요집성』의 향가편을 자세히 보면 적지 않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작품 의역(해석)과 표기 그리고 제명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 의역(해석)

작품 의역(해석)과 표기에 대해서는 <안민가>를 예로 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¹⁹⁾

구	원문(『삼국유사』)	소창진평 어석	소창진평 축어역 ²⁰⁾	소창진평 의역 ²¹⁾	김태준 의역	비고
1	君隱父也	님금은 아비요	君은 아버지여	君은 아버지여	님금은 아버지요	
2	民隱愛賜尸母史也	臣은 드스살 어미라	臣은 사랑해주는 어머니라	臣은 慈愛를 드리 우는 어머니라	臣下는 사랑을 드리우는 어머니 니	
3	民焉狂尸恨阿孩古爲 賜尸知	민은 미친은 오히(라)고 흐살 디(면)	민은 미친 어리나라고 삼아서서야	민은 미친 어리니 라고 가엾게 여겨 주셔서야	백성을 잔난바치 어린애라고 사랑 해주셔야	‘狂’을 ‘장난’으 로 봄
4	民是愛尸知古如	민이 드숨을 알고다	민은 사랑을 알리라	민은 비로소 사랑을 알리라	백성도 사랑을 알리이다,	
5	窟理叱大月盼生以支 所音物生	굴스델 生으로 필 바인 物生	樞機를, 生을 가지고 지탱하는 者	樞機에 生氣있게 하는 者도	樞機에 生氣있게 하는 者도	
6	此盼喰惡支治良羅	이를 먹어 다스리라	이를 먹어서 다스리라	민을 먹어야 다스 릴 수 있으리라.	백성을 다스리고 祿을 먹으리이다	2句로 나누어 해석
7	此地盼捨遺只於冬是 去於丁	이싸힐 버리고 어되가는 덩	이 땅을 버리고 은 어디로 가더라도	민은 어디로 떠나더라도	백성은 어떨가던지	此地盼捨遺只 의역 없음 ²²⁾
8	소창 ⁸⁾ -爲尸知國惡支 持以	홀 나라해 디너	정치를 할 나라에 依하여	나라에 依하여	나라에 依하여 사는 것이다	소창의 8구와 9구를 이어져 서 해석
	소창 ⁹⁾ -支知石如	필고다	지탱한다	생을 유지한다		
9	君如臣多支民隱如	님금이다, 臣이다, 민이다	君은 君, 臣은 臣, 민은 민이다	君은 君, 臣은 臣, 민은 민이라면	君은 君, 臣은 臣, 민은 民의 職分을 다하면	

17) 신라(新羅)의 향가(鄉歌)는 문학박사(文學博士) 소창진평(小倉進平) 선생(先生)의 저(著) 『향가급이두(鄉歌及吏讀)의 연구(研究)』에서 그 해석(解釋)을 전제(轉載)하고 <서문>; 여기는 右 鄉歌 二十五首를 文學博士 小倉進平 先生の 譯讀 그대로 轉載하였다. 小倉 先生에게 深謝하는 바이다. <해제>.

18) 小倉進平, 『鄉歌及び吏讀の研究』(京城帝國大學 法文部, 1929).

19) 소창진평의 축어와 의역은 원래 일어로 되어 아래 주석에서 원문을 밝혔다. 그리고 소창과 김태준의 향가 해석의 차이를 비교를 위해 소창의 일문(日文)을 한국어 번역문을 표에 옮겼다. 일어의 한국어 번역 및 어학적 조언은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국제어학원 홍고테로우 교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홍고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10	爲内戸等焉國惡太平 恨音叱如	홀 든 나라해 太平(이) 하와이다	하여야 나라에 태평이 많으리라	나라는 태평에 입어야 하리라	나라는 太平하리이다	
----	-------------------	--------------------------	---------------------	--------------------	---------------	--

소창과 김태준의 의역(해석)을 살펴 보면 3구와 6구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3구 원문에서의 ‘광(狂)’을 소창은 글자대로 ‘미친’으로 풀었으나 김태준은 조금은 순화시켜 (혹은 비유적 표현으로 읽어) ‘장난’으로 읽었다. 이를 해석상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광(狂)’이 수식하고 있는 민(民)까지 고려한다면 민에 대한 인식적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민은 문제적 인간으로 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순진한 민중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태준은 비록 작품 공간 내에서 있는 신라 백성을 소창보다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주요 향가 해독에서도(양주동, 홍기문, 김완진) ‘광(狂)’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있는데, 아마 이들이 김태준의 영향을 일부 받지 않았나 싶다.

6구에서는 소창이 (군과 신이) 백성을 먹여 다스리라고 한 반면, 김태준은 백성을 다스려야 (군과 신이) 봉록(俸祿)을 먹을 수 있다고 풀었다. 전자가 치자의 일방적인 시혜적 입장이라면 후자는 상호 계약적 관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중세 봉건제 시스템에서 었 볼 수 있는 주종적 계약 관계는 아닌가 한다. 선치(善治)를 하면 봉록 수혜를, 악정(惡政)을 행하면 봉록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9구에서 말한 군신직분의 수행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납세자인 민의 위상을 조금은 높이려는 김태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는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8구는 내용상의 차이는 없고 해석 단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창은 8구를 두 구로 나누어 해석한 반면 김태준은 하나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8구와 10구에서 김태준의 해석이 좀더 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구, 3구, 4구, 7구, 10구에서 표기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巨은[은-김태준]드으[슴-김태준]살어미라(2구), 민은밋칠은으희(라)고흐살디(연)(3구), 민이드음[슴-김태준]올알고다(4구), 어디가는[논-김태준]녕(7구), 홀든나라해太平이(김태준은 괄호를 없앴음)하와이다(10구))

2) 제명

김태준이 명명한 제목을 소창진평과 양주동의 것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 20) <소창진평 일본어 축어역> (1구) 君は父なり / (2구) 臣は愛し給ふ母なり / (3구) 民は狂へる子なりと爲し給ひてこそ / (4구) 民は愛を知るなれ / (5구) 樞機を生を以て支ふる所の者 / (6구) 之を食して治むるなり / (7구) 此の地を捨てて民は何處に行かんとすとも / (8구) (政)を爲す國に憑りて / (9구) 支ふるなり / (10구) 君は君たり、臣は臣たり、民は民たりと / (11구) 爲さば國に太平多かるべし.
- 21) <소창진평 일본어 의역> (1구) 君は父なり / (2구) 臣は慈愛を垂るゝ母なり / (3구) 民は狂へる子なりと憐み給ひてこそ / (4구) 民は始めて愛を知るなれ / (5구) 樞機に生氣あらしむる者も / (6구) 民を食してこそ政(まつりごと)をなし得るなれ / (7구) 民は何處に往かんとすとも / (8구) 國に憑りて / (9구) 生を保つなり / (10구) 君は君、臣は臣、民は民たらば / (11구) 國は太平に浴すべし.
- 22) 둘 다 의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발표자는 ‘이 땅’의 의미를 당위적 국가귀속주의와 거리를 두고자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정할 뿐이다.

소창진평(A)	김태준		양주동(B)
	목차 제목(A #)	본문 제목(B)	
서동동요	서동요	서동요	서동요
양지사석	양지사석가	풍요	풍요
광덕엄장	광덕의 처 업장을 간(諫)한 노래	광덕처 업장의 파계를 간(諫)하는 노래	원왕생가
월명사 위망매영제가 (爲亡妹營齋歌)	월명사 망매를 위해서 재를 올린 노래	월명사 제망매가	제망매가
신충 백수가	신충 백수가	신충 쾌관가	원가
영재우적	영재 우적가	영재 우적가	우적가
예경제불가	예찬여래가	예경제불가	예경제불가

위 표를 보듯이 제명은 약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태준과 소창의 제명이 다를 뿐 아니라 『조선훈요집성』 내에서도 목차와 본문의 제명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태준의 목차 제목을 중심으로 보면 일정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김태준은 향가 부분을 엮을 때 많은 부분 소창에 의지했기 때문에 작업 초기라 할 수 있는 목차에는 소창의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A→A # 단계) 이후 본문 작업에 들어갔을 때 작품의 내용과 배경담을 참고하면서 ‘가·요(歌謠)’식으로 재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A # →B 단계) 또한 <풍요>의 경우 소창과 목차 제목에서는 ‘양지’를 제명에서 언급했으나, 본문에서는 ‘양지’ 대신에 ‘풍요’로 수정하였다. 전자가 『삼국유사』의 절명(節名), 배경담 그리고 양지에 비중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노래와 그 노래를 부른 민중에 의미를 두어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태준의 재명명으로 인해 양주동을 거쳐 현재 우리가 <서동요> <풍요> <제망매가> <우적가>라는 낯익은 이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김태준이 향가편을 정리하면서 소창의 것을 가져왔지만 의역 부분에서 민중성에 기반한 해석을 시도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좀더 매끄럽게 수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제목을 내용과 배경담을 고려해서 간결하게 재명명하였음 하였던 것이다.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는 향가해독과 향가연구사에서 배제했던 김태준의 논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고려속요의 어석과 성격

연구초기부터 지금까지 고려속요의 제반 성격을 정립하는데 일부 연구자는 양주동의 『여요전주』(1947)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보기도 한다.²³⁾ 하지만 이보다 앞서 김태준은 고려속요에 대한 범위, 기원, 내용상 특징 등을 언급하였고, 특히 고려속요의 어석과 현대역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와 『조선훈요집성』·『고려가사』가 고려속요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여요전주』 이상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1) 어석

23) 최미정, 『고려속요의 진승 연구』(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19~20면.

고려속요에 대한 어석과 현대역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전편에 대한 주요 어석만해도 양주동(1947)이후 지현영(1947), 홍기문(1958), 김형규(1965), 박병채(1968; 1994), 최철·박재민(2003) 등 많은 업적들이 쌓여왔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고려속요 이해를 제고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발표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양주동 이하 연구자 가운데 대부분 최초의 고려속요 어석(주석) 및 의역(현대역)서인 『조선가요집성』(『고려가사』)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연구자 중 일부는 김태준과 그의 저서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초기 학자들인 경우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예를 통해 알아 보자.

【석석사리】 (<이상곡>)

김태준: 석석사리는 蔓藪, 灌木雜草가 험클어진 것을 말함이며, 至今 慶州地方에서 쓴다.(『조선가요집성』 51면; 『고려가사』 78면)

양주동: 석석사리는 未詳. 하마 「藪林」의 義. (수림에 대해 양주동은) 慶州地方 現行方言은 「灌木의 枝幹이 얼크러진 藪林을 「석석사리」라 함.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350면)

지현영: 석석사리……蔓藪, 가늘은 풀이 육어진 것.(『향가여요신석』, 정음사, 108면)

박병채: 석석사리> 나무 숲. 慶州方言에서 灌木이 얼크러진 藪林를 「석석사리」라 한다고 함.(『고려가요 어석연구』, 선명문화사, 1968, 288면)

‘석석사리’에 대한 어석들이다. 이 시어에 대해 김태준은 경주 방언까지 탐색하면서²⁴⁾ 엉클어진 나무 숲[蔓藪]으로 새겼다. 이후 이 어석은 양주동과 지현영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밑줄 친 부분을 비교해보면 양주동과 지현영은 분명 김태준의 저작물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김태준과 그의 저작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병채의 경우 기존 서적을 참고했다는 뉘앙스는 풍기지만 그 역시 구체적으로 밝혀 놓지 않았다.

【새서가만하애라】 (<동동>)

김태준: 歲序가 晩하게되리라라는 뜻인가? 새서는 새서의 意일까.(『조선가요집성』 36면; 歲序가 晩하여라. 『고려가사』 29면)

양주동: 歲序가 晩하여라.(『여요전주』 121~122면)

김형규: 歲序가 晩하여라.(『고가요주석』, 일조각, 243~245면)

이 시어(‘새서가만하애라’) 또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난해한 어구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고민은 흔적은 김태준에게서도 엿보인다. 그는 최초의 어석에서 ‘歲序가 晩하게되리라라는 뜻인가? 새서는 새서의 意일까.’라하면서 조심스럽게 뜻을 추정하였다. 결국 이런 고민은 『고려가사』에 이르러 ‘歲序가 晩하여라’로 단정하였다. 이후 양주동과 김형규 등은 김태준의 어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런저런 문헌들과 어학적 지식들로 보완하였을 뿐이다. 이들 역시 앞서의 예처럼 김태준의 어석을 인지(認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을 하지 않

24) 김태준은 평안북도 운산 출신으로 후에 전북 익산과 서울에서 공부했을 뿐 경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았다. 심지어 이 시어에 대한 여러 설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조차 김태준은 없었다.²⁵⁾

위 사례를 보듯 고려속요 어석에서 김태준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결과 학문적 검증과 공과 대상이 엉뚱하게 흘러가 오해를 빚기도 하였다. 발표자는 김태준의 어석을 무조건 높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김태준이 수행한 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의 어석 사실 자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검증과 공과의 대상을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김태준의 연구사적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성격

II장 2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김태준은 고려속요를 민요에 기반하여 형성된 민중의 노래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근거를 고려속요 수록 문헌인 『악장가사』에서 찾았다. 그는 이 책이 조선전기 지역 민간인 박준에 의해 편찬된 정리서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소재 노래 대부분이 고려시대 민간의 노래라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후 고려속요의 성격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양주동을 거쳐 지금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려속요 연구가 축적되면서 고려속요를 민간가요설로 보는 입장은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 왔다. 다시 말해 고려속요 가운데 민요적 성격보다는 고려 귀족층이 창작한 노래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설령 민요에 기원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편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궁중 문화담당자인) 편사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려속요가 민중성을 지녔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악장가사』를 17세기 조선 궁중에서 편찬한 시용(時用)·상용(常用) 악서라는 견해(발표자), 고려속요가 궁중 잔치 음악용 가사(궁중 전용 악가-김학성; 넓은 의미의 악장-나경수) 등을 참고할 때도 김태준이 말한 고려속요의 성격 규정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준의 주장은 시가사의 구도 내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쟁점화하면 보면 다음과 같다.

A. 민요로 보는 견해

담당층 - 하층 / 주제 - 인간 감정의 진솔한 표현

B. 민요와 그 이상의 작용으로 형성된 노래로 보는 견해

담당층 -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 즉 상층 지배층 / 주제- 송축, 풍류, 음사(淫詞)

여기서 김태준은 A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김태준은 쟁점의 장에 놓여 있다 기보다는 쟁점 공간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김태준이 고려속요의 성격 규정을 위해 몇 년 간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내놓을 것을 이후 연구자들이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확대

25) 강현규, 『고가요의 주석적 연구』 (한국문화사, 2004), 366면. 아마 김태준의 고려속요 어석과 현대역을 전면 소개한 것은 발표자가 처음일 듯하다.(『고려속요집성』, 다운샘, 2002). 이 책의 제목 또한 『조선가요집성』을 염두하여 명명하였음을 밝힌다.

재생산한 다음 전제로 삼았다는 데 있다. 물론 최근의 고려속요 연구사를 보면 A와 B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김태준의 구도가 시가사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김태준과 『조선가요집성』 『고려가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3. 후대의 작품 규정과 시가 선집

이 장에서는 『조선가요집성』이 이후 고전시가와 시가 선집 편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언급하고자 한다.

1) <보현시원가>

주지하다시피 <보현시원가>는 11수로 된 연장체 향가다. 다시 말해 <보현시원가>는 각기 다른 11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1개의 연들이 1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작품집을 엮을 때 편집자는 <보현시원가>를 하나의 작품 번호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예경제불가’는 그 번호 밑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가요집성』을 보면 <보현시원가>는 작품 번호를 갖지 못한 반면 ‘예경제불가’는 <안민가>등과 동일한 비중의 번호를 받고 있다. 이 점이 발표자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보현시원가>와 <안민가>의 비중이 동일하다고 볼 때, <보현시원가> 하위 작품인 ‘예경제불가’는 <안민가>등과 나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가요집성』에서는 이들을 같은 비중의 목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제명 <보현시원가>는 차례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없었다. 이처럼 <보현시원가>와 그 하위 작품들에 대한 김태준이 했던 처리 방식은 이후 고전시가작품집 가운데 『우리의 옛 노래』(임기중, 현암사, 1993)을 제외하고는 『한국고대가요』(황폐강·윤원식, 새문사, 1986), 『한국고시가』(최용수, 태학사, 1996) 등 대부분이 따르고 있다. 이들이 『조선가요집성』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상적 결과는 어쨌든 동일하다.

2) 북한학의 시가 연구

(1) 윤선도 <어부사시사>의 갈래

김태준은 『조선가요집성』 이조가사편 제34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수록하였다. 이 작품에 대해 우리 학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시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태준은 <어부사시사>를 시조로 보지 않고 장편가사로 파악하고 있다. 작품 후기에 “短歌(시조-발표자주)에 있어서 朝鮮詩歌上의 第一人者인 그 長篇으론 이것(<어부사시사>-발표자주)뿐이

다.”²⁶⁾ 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는 시조 형식을 가진 노래라 하더라도 연장체(연시조)유무를 기준으로 장·단가를 구분한 것 같다. 「별곡의 연구」에서 <산중신곡> <산중속신곡>을 <어부사시사>와 함께 장가로 파악하고 있는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와 같이 김태준이 <어부사시사>를 장편가사(장가)로 보는 견해는 북한 시가 연구 거의 비판없이 계승되었다. 단적인 예로 북한에서 펴낸 『가사집』에서 <어부사시사>를 실으면서 해제에 “<어부사시사>는 절가화된 가사이면서 런시조적성격을 띤 작품이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²⁸⁾ 미루어 북한의 고전시가학계는 <어부사시사>를 가사의 유산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의 시가 선집(1985년)

북한에서 펴낸 고전시가자료집에서도 김태준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다. 북한은 1985년부터 한국고전문학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고전문학(한문학) 전 분야에 걸쳐 약 100여권분량으로 자료집을 엮어 내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고전시가관련 자료집은 『가요집』 1·2, 『가사집』, 『시조집』 총 네 권인데, 『가요집』에는 향가, 고려속요, 민요 등이, 『시조집』은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 남훈태평가에서 발췌한 작품들이, 『가사집』에는 가사 및 십이가사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가요집』의 경우 향가를 민요와 함께 엮은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은 이상하겠지만, 김태준이 향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상기한다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태준은 향가를 민중성에 기반한 갈래로 보았고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공유의 근거는 북한의 문학이념인 당성, 계급성,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등-북한의 연구자라면 향가와 민요를 함께 묶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조집』은 여러 가집의 작품을 선별 수록하였는데 그 중 청구영언의 작품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시조집』 편집자(김하명)가 청구영언이 가집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문은 청구영언의 여러 이본 가운데 선본이라 할 수 있는 진본 청구영언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옳을 듯하나 일러두기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일러두기에 “각 가집들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청구영언>은 1939년 학예사 간행본을 기본으로 하였다.”²⁹⁾고 적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예사 간행본은 김태준이 편집 교열한 19세기 편찬된 육당본 <청구영언>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1985년의 가집 연구 상황과 편집자인 김하명의 수준을 고려해보면 육당본을 선집의 저본으로 삼은 것은 조금은 의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달리 보면 ‘육당본’이기 때문에 청구영언의 기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김태준이 선택·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김하명과 김태준의 관계(시조집) 편집자인 김하명이 경성제대 학생시절 당시 교수였던 김태준과의 관계) 내지 『시조집』 편집자(편집팀)의 『청구영언』(1939)에 대한 특별한 생각 등을 추정할 뿐

26) 『조선가요집성』 181면.

27) 「별곡의 연구」(동아일보, 1932. 1. 32. ~ 2. 2.). 金台俊 著, 『金台俊 文學史論選集』. 丁海廉 編譯(現代實學社, 1997), 460면.

28) 현종호 편, 조선고전문학선집 4 『가사집』(평양종합인쇄공장, 1985), 165면.

29) 김하명 편, 「일러두기」, 조선고전문학선집 3 『시조집』(평양종합인쇄공장, 1985).

이다.

이외에 『가사집』에서는 김태준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다만 <상춘곡>의 낙구 표기에서 『조선가요집성』과 『가사집』이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춘곡>의 낙구는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흐리.’이지만, 『불우헌집』을 보면 ‘아모타 百年行樂 어이만흔들 엇지흐리.’로 되어있다. 문집에 근거한다면 후자가 분명 옳은 표기이지만, 우리가 전자에 익숙한 것은 1950년대 초기부터 비롯된 원전 검토 부주의 내지 무비판적으로 재인용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과거 50여년간 우리 쪽에서는 <상춘곡>의 낙구를 자료집, 교과서, 연구물 등에서 잘못 표기하였고, 1934년 김태준과 1985년 현종호는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85년 『가사집』 편집자가 정극인 문집을 참고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자료집인 김태준의 것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그간 김태준의 업적에 대한 고찰은 고전소설과 한문학 쪽에서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비해 김태준의 고전시가연구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의 대표적인 고전시가 업적물이라 할 수 있는 『조선가요집성』에 대해 고전시가 연구사적 측면에서 이것의 성격과 위치를 살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선가요집성』은 민중성을 담지한 고전시가 작품집으로, 암묵적이지만 그 연구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가요집성』의 편향된 시각은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원전을 넘어서는 자의적 작품 해석, 일방적인 갈래 해설 그리고 편집·체재면에도 주요 갈래를 배제하는 등 그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선가요집성』만한 시가선집이 없었다.”는 어느 노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에게 여전히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 강현규. 『고가요의 주석적 연구』. 한국문화사, 2003.
金台俊. 『高麗歌詞』. 學藝社, 1939.
金台俊. 『金台俊 文學史論選集』. 丁海廉 編譯, 現代實學社, 1997.
金台俊. 『朝鮮漢文學史歌』. 漢城圖書株式會社, 1931.
金台俊. 『朝鮮歌謠集成』. 漢城圖書株式會社, 1934.
金台俊. 『靑丘永言』. 學藝社, 1939.
金亨奎. 『古歌謠註釋』. 一潮閣, 1992.
김명준. 『고려속요집성』. 다운샘, 2002.
김하명 편. 조선고전문학선집 3 『시조집』. 평양종합인쇄공장, 1985.
朴炳采. 『高麗歌謠語釋研究』. 宣明文化社, 1968.

- 寶庫社 編. 『金台俊全集』 1 詩歌. 寶庫社, 1990.
 小倉進平.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法文部, 1929.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47.
 池憲英. 郷歌麗謠新釋. 正音社, 1947.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현종호 편. 조선고전문학선집 4 『가사집』. 평양종합인쇄공장, 1985.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태준의 『조선가요집성』의 성격과 위치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태준은 『조선한문학사』로 한문학을, 『조선소설사』로 고전소설을 정리한 것처럼 이 선집으로써 고전시가를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가요집성』이 연구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까닭에 필자는 이 선집의 성격과 위치를 살폈던 것이다. 논의 결과 이 선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시대와 장르별로 민중성이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선집에서 보여준 향가의 제목, 고려속요의 어석과 특성, <보현시원가>의 작품 수, <어부사시사>의 갈래 규정 등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김태준과 이 선집은 북한의 고전시가 정리 작업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선집이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작품의 해석, 갈래의 성격 규정 그리고 시조의 배제 등은 이 선집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주요어: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조선소설사, 조선가요집성, 민중성

<Abstract>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look at the characters and status of Kim Tae-jun's 'Collection of Joseon Songs'. It seems like Kim Tae-jun has attempted to put Korean classic poetries together as an anthology, just like he arranged sino-Korean literatures by History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and classic novels by History of novels in the Joseon Dynasty. He started to study on this anthology's characters and status because there were little research on this matter, though 'Collection of Joseon Songs' was very important anthology in the research history side.

As a result of discussion, the works included in this anthology have strong democratic character by its period and genre.

Further, the title of old Korean folk songs, and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Goryeo folk songs, the number of <Bohyeon Sipwonka> and the genre provision of <Song of Fishermen> affected to later researchers directly and indirectly. Moreover, we could recognize that Kim Tae-Jun and this anthology showed much of their influence on North Korea's classic poetry arranging work.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f this anthology by ideological bias including interpretation of work, a provision in character of

genre and exclusion of a Korean verse.

KEY WORD: Kim Tae-jun, History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History of novels in the Joseon Dynasty, Collection of Joseon Songs, democratic character

<영문제목>

The characters and status of collection of Joseon Songs in the research history of Korean Old Poetry.

<투고자 정보>

김명준(金明俊) Myung Joon Kim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초빙 전임강사
136-767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대우아파트 104-108
02-6223-4160
kmj1988@korea.ac.kr